

## 섬기는 교회

성경말씀: 롬12:1-8

말하는 교회, 연구하는 교회, 이제는 실천이 나와야 한다.

사도 바울의 서신, 교리와 실천, 배움이 삶으로, 그래야 배운 것이 열매를 맺는다.

바른 교리, 바른 관계, 바른 생활, 섬기는 교회

### 배경

로마서 1-8장: 구원의 교리, 9-11장: 이스라엘의 상태와 미래, 12장부터 실천

12:1의 그러므로, 11장 끝을 보아야 한다. 11장 33-36절, 이후에 '그러므로'가 나온다.

부요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배워 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 하나님과의 관계

1. 몸(1절)을 드린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정욕을 위해 몸을 썼다. 이제는 몸이 하나님의 전(고전 6:19-20)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몸을 취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6:13).

구약은 죽은 희생물, 신약은 살아 있는 희생물을 요구한다.

살아 있는 희생물: 이삭과 예수님

이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몸을 제단에 내놓음. 하나님께서 솟양을 예비함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몸을 제단에 내놓음.

드리라: 단번에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처럼

그리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2)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다(봉사).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긴 것처럼

2. 생각을 드린다(2절):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밖에서 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한다(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3. 뜻을 드린다(2절), 생각은 몸을 조절한다. 뜻은 생각을 조절한다.

내가 내 뜻을 조절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롬7:15-21)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뜻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 성도들과의 관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쓴다.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과 같다.

손, 발, 입, 코, 귀 다 다른 지체이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다.

1절의 하나님을 알고 합당하게 섬기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바르게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면 몸의 지체를 바르게 섬기게 된다. ★★★

각 지체는 선물이 있다. 손이 하는 것, 발이 하는 것, 귀가 하는 것, 눈이 하는 것, 코...

이것들을 잘 결합하여야 바른 몸이 나온다. 각각의 지체는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한다.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다. 크든 작든 다 기능이 있다.

교제 없이 손살같이 도망하는 사람들: 자신을 냉철히 평가해 보아야 한다. ★★★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1.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과 특징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자체는 바른 것이고 꼭 필요하다.

다만 잘못 평가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한다(3절 끝).

술 취하면 과대평가한다. 제 정신으로 해야 한다.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큰 믿음의 소유자는 큰 믿음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자기도 망하고 교회에도 타격을 준다.  
 지식, 선물, 은혜(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죄의 회개, 이웃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등)  
 너무 과소평가하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진다.  
 이 두 가지는 다 교만의 산물이다. 각자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해야 한다. ★★★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 2. 서로 협력하는 것(4-8)

지체마다 맡은 바 직무가 다르다. 우리도 서로 지체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다른 선물의 직무가 있다. 모두 은혜로 받았다.

(1) 대언의 선물: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 지금은 교회의 목사로 보면 된다(6).

믿음의 분량대로 설교한다(3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한 만큼 대언하게 되어 있다.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만을 강조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모두 같은 사람으로 본다. 같은 하나님

(2) 사역(ministry)은 섬긴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목사를 minister라고 했다. 수상 prime minister 집사(deacon)도 같은 뜻에서 나왔다. 지금은 집사로 보면 된다.

(3) 가르치는 자, 교사(초중등, 청년, 어른들 주일학교, 성경 학교)

(4) 권면하는 자: 목사와 집사와 같은 수준의 선물이다. 좋은 상담자

(5) 주는 자: 헌금하는 사람들, 단순하게(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6) 다스리는 자: 행정 목사나 집사,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심방, 병 문안

(7) 긍휼을 베푸는 자: 구제하는 사람들, 즐거움으로 한다.

이 모든 것에 차이가 있는가? 누가 누구보다 더 영적인가? No!

목사는 집사보다, 집사는 성도들보다 나은가? No!

여기서 차이를 보이면 교회가 세속화 계급화 된다.

목사(나), 집사(이재식, 이주확, 허춘구, 홍승대, 김승태, 김준희, 김성조, 송재근)

부지런히 해야 한다. 무엇을 섬길까 늘 생각해야 한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형제라 부르자. 집사회는 교회의 대의 기구로 보면 더 좋다.

교사(김준희 및 초중고 교사, 김성조)

청소(천안 팀, 구리 팀), 식사(자매님들), 설거지, 반주(세 명), 오케스트라, 책 정리, 아이들 보기 헌금하는 분들

직무와 선물을 남용하면 교회가 망한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 넘쳤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였다.

고전12:28-31

모두 목사이겠느냐? 집사이겠느냐?... 답은 No이다.

### 우리 주님의 말씀

마20:25-28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구함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자기의 선물을 알고 묵묵히 부지런히 남을 섬기는 사람 ★★★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 ★★★

### 결론

교리를 많이 알면 실천이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 몸과 생각과 뜻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

무엇으로 성도들을, 사회를 섬길까? 낮아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살전1:3)